

# 킨스이우키요조시(金水浮世草子)\*

- 『하나가타미(花筐)』를 중심으로-

崔泰和\*\*

(e-mail : saikun25@gmail.com)

##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쇼테이 킨스이(松亭金水) | 2. 『하나가타미』의 구성          |
| 2. 킨스이년조본의 구성           | 2.3. 『하나가타미』의 여주인공들의 개성 |
| 2.1. 킨스이 "불역체"의 특징      | 3. 나가며                  |

キーワード: 松亭金水(Syotei kinsui), 人情本(Ninjobon), 不易体(huekitei), 浮世草子(Ukiyo zoshi), 勧善懲惡(Kanzenchouaku), 이키(Iki)

## 1. 들어가며 - 쇼테이 킨스이(松亭金水)

다메나가 슌스이(為永春水)는 년조본의 원조를 자칭할 만큼 명성을 얻은 근세후기의 대표적 년조본작가다. 따라서 삼각관계를 바탕으로 그려지는 농밀한 애정 묘사와 패션잡지를 떠올릴 수 있을 세밀한 의상 묘사 등으로 대표되는 슌스이년조본의 특징은 년조본 장르 전체의 특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압도적인 작품 수도 슌스이가 장르를 대표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소설을 대량생산할 수 있던 것은 슌스이가 슌스이렌(春水連)으로 불리는 수많은 서브 라이터(sub writer)를 두는 집단창작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쇼테이 킨스이(松亭金水)는 이러한 슌스이렌의 일원으로 슌스이의 제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킨스이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으나 마에다 아이(前田愛)가 『국사대사전(国史大辞典)』(吉川弘文館, 1979), 무토 모토아키(武藤元昭)가 『일본대백과전서(日本大百科全書)』(小学館, 1994)에 기록한 킨스이에 관한 사항이 인용가능한 신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군산대학교 신입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군산대학교, 조교수, 일본문화

되성을 가졌다고 판단된다. 이후의 긴스이 연구를 위해 마에다와 무토가 조사한 긴스이에 관한 사항을 약기(略記)하면 다음과 같다.

1797년 에도 출생. 본명은 나카무라 쓰네토시(中村経年), 또는 나카무라 모리사다(中村保定). 통칭은 겐파치로(源八郎), 겐파치(源八)이며 별호는 세키스 이도진(積翠道人), 셋사쿠도(拙作堂)이다. 처음에는 서예가 다니 가나가와(谷金川)의 문하생으로 필경(筆耕)과 서예선생을 생업으로 하였다. 교쿠테이 바킨(曲亭馬琴)의 요미혼(読本)의 필경을 자주 하였으며, 슌스이닌조본의 필경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슌스이의 문하에서 게사쿠(戲作)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긴스이라는 호는 가나가와와 슌스이의 이름에서 한글자씩 따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1832(덴포3)년 긴스이는 닌조본으로는 처녀작인 『고이노 하나조메(恋の花染)』 초편을 간행하고 이후, 슌스이를 뒤를 잇는 덴포기(天保期)의 대표 닌조본작가로서 지위를 확립한다. 긴스이의 작품은 플롯의 전개는 정밀하나 내용면에서는 교훈성을 강조한 나머지 서정적인 장면이 결여되는 경향이 보인다. 슌스이 사후에는 『오오카와 진세로쿠(大川仁政録)』 (1854) 등 요미혼(読本)과 『세키스이칸와(積翠閑話)』 (1849), 『쇼테만필(松亭漫筆)』 (1852) 등 수필 등도 집필한다. 1862년 12월 12일, 66세로 숨을 거둔다. 법명 료고인(了悟院) 긴스이 히마쓰 신시(金水日松信士)。에도 우시고메 에노키초(江戸牛込榎町)의 다이호지(大法寺)에 안치되었으며, 다이호지는 1909년 현재의 도쿄 스기나미구(杉並区) 마쓰노키 3초메(松ノ木三丁目)로 이전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의 풍자잡지 「마루마루친분團團珍聞」의 주필이었던 바이테 긴가(梅亭金鷺)가 긴스이의 문하생이었다.

긴스이는 필경을 했던 바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도 하는 등 긴장관계에 있었으나<sup>1)</sup>, 슌스이와는 사제의 관계를 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1827년 간행된 류센테이 타네마사(柳泉亭種正)가 쓰고 류테이 타네히코(柳亭種彦)가 교합한 닌조본 『슌쿠에키단(春駒駅談)』은 『국서총목록(国書総目録)』에 초편만이 확인되고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과정에서 간사이(関西) 대학교 종합도서관이 『슌쿠에키단』 후편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슌쿠에키단』 후편(1831)은 류센테

1) 崔泰和(2010) 「松亭金水の人情本における「伏線」—『毬唄三人娘』を中心に」 『東京大学国文学論集』 5巻、p.116.

이 타네마사에 이어 긴스이가 집필하였고 그 서문을 슌스이가 담당하였다. 슌스이는 이 서문에서 "친구 긴스이(友人金水)"라는 문장을 남기고 있다. 긴스이 역시 슌스이를 "친구 슌스이(友人春水)"(『兩個女兒郭花笠』3編序、1836)라고 부르고 칭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진보 카즈야(神保五弥)가 논하는 바와 같이, 긴스이가 슌스이렌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사제(師弟) 관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긴스이에 관한 연구논문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조차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sup>3)</sup>. 긴스이는 일본의 근세후기와 근대초기의 대중문학 연구에 있어 불가결한 작가로 일본대중문학이 근대초기에 한국대중문학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면, 긴스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학연구에 많은 의미를 가진다<sup>4)</sup>. 『하나가타미(花筐)』(1841)는 긴스이의 대표작으로 거론되어 오지 않았던 작품이나, 여러 명의 여성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슌스이닌조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슌스이와 긴스이의 닌조본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긴스이 닌조본 연구의 대상으로 의미를 가진다.

## 2. 긴스이닌조본의 구성

### 2.1. 긴스이 "불역체"의 특징

긴스이는 슌스이의 문체를 당시의 유행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다는 의미로 "유행체(流行體)"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문체는 슌스이 만큼 빠르게 시류에 영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역체(不易體)"라고 자칭한다. 다만 마쓰오 바쇼(松尾芭蕉)의 하이카이(俳諧)이념인 "불역유행(不易流行)"에서 차용한 개념이나 단순히 당시의 유행을 묘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의미하는 표층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sup>5)</sup>.

2) 神保五弥(1964) 『為永春水の研究』、白日社、p.44.

3) 橋口利長(1966) 「松亭金水の貞操園朝顔」 『文学研究』23卷、p.4.

橋口利長 (1967) 「松亭金水の「郭の花笠」について」 『文学研究』25卷、p.5.

武藤元昭(1995) 「『春色湊の花』の位置」 『青山語文』28卷、p.10. 등.

4) 예를 들어 최태화(2018) 「닌조본과 딱지본대중소설 비교고찰-멜로드라마적 특성과 현대 영상콘텐츠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105권, pp.91-108. 최태화(2018) 「개사쿠(戲作)와 한국 딱지본대중소설의 표지 및 삽화 비교」 『日本文化学報』76호, pp.265-288. 등.

긴스이가 말하는 "불역체"는 권선징악구조를 축으로 하는 내용전개를 의미한다. "불역체"는 구성의 일관성을 담보하기는 쉬우나, 상투적 내용전개로 독자가 쉽게 식상할 수 있다. 마에다 아이가 『국사대사전』의 쇼테이 긴스이의 항목에서 "긴스이의 작품은 플롯의 전개는 정밀하나 내용면에서는 교훈성을 강조한 나머지 서정적인 장면이 결여되는 경향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불역체"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순스이의 문체와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문제점을 "불역체"라는 수동적인 수사(修辭)로 회피하려 한 것만은 아니었다. 긴스이는 유행어와 새로운 문학적 테크닉, 즉 슈코(趣向)를 사용하는 것으로 식상함을 막고자 하였다<sup>6)</sup>. 『하나가타미』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sup>7)</sup>.

비록 모습의 추악하여 혹은 있던 추녀가 무염 출신 추녀 위에 서지 못한 듯 하더라도 그 마음씨가(중략)자비심이 깊고 상냥하면 평생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으며, 비교할 사람들의 많더라도 결국에는 정성으로 돌아올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유희로 내가 이제까지 저술한 방식과는 다르게 되었다.

『하나가타미』의 제목은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 754번 「꽃 바구니의 그물코처럼 (그 분에게는)비교할 분이 많기에, 아마 잊혀지겠지, 나 같은 것은 (花がたみ 目ならぶ人のあまたあれば忘れぬらむ数ならぬ身は)」에서 가져왔다고 명기하였다. 와카의 의미를 살려서 비록 추녀이나, 마음은 아름다운 주인공을 내세운다는 것을 말한 후 "내가 이제까지 저술한 방식과는 다르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하나가타미』가 지금까지와의 긴스이의 난조본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추녀를 여주인공으로 삼는 것도 이제까지 없었던 슈

5) 崔泰和(2009) 「為永春水と松亭金水一人情本の「不易体」と「流行体」について」 『国語と国文学』 86卷10号、p.49.

6) 앞에 논문, 崔泰和(2009) p.56.

7) 이하의 인용은

人情本刊行会(1926) 『風俗粹好伝/四時遊觀花筐』 人情本刊行会、pp.111-470.  
을 저본으로 한다.

たへ せが みにく しゆくりう しうぢよ ふえんぢよ うへ た たれぬ さま 其 こゝろだて じひ るか せき  
仮令 妾の 醜くて 宿瘤 醜女が 無塩 女の上へ 立たれぬ 様なりとも、 其の心立…… 慈悲 深くして 優しけれ  
ば、生涯 人に 疎まれず、目 並ぶ 人の 多しとも、 竟には 誠に 帰する 由を、 悟らせんと 的に て、 予が  
是れまでに 著したる、 書きさまには 辞かはれり。

코이나, 와카 「하나가타미」의 내용에 빗댄 것과 같이, 소설 속에 많은 여성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이전의 킨스이닌조본과는 다른 방식이자 슌스이닌조본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2.2. 『하나가타미』의 구성

게사쿠(戲作)에서 결말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는 여성은 대개 현모양처형의 모범적 여성이다. 이와 반대로 남자에 대한 집착, 질투로 인해 죄를 짓는 여성은 악녀가 되어 징악(懲惡)되는 것 또한 게사쿠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현모양처형은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 어느 작품에서도 대동소이한 스테레오 타입의 묘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집착과 질투를 하는 ‘악녀’는 그 집착의 정도, 질투의 방법 등으로 다양한 개성을 드러낼 수 있어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캐릭터로 그려질 수 있다. 산토 교텐(山東京伝)의 요미혼 등에서도 그러하듯이 평범했던 여성이 질투로 인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묘사하며 벌을 받아 마땅할 악녀로 그리는 데에 힘을 쏟는 것은 인물묘사의 변화를 다양하게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1877(明治10)년대에 유행했던 게사쿠 작가 출신의 가나가키 로분(仮名垣魯文)의 『다카하시오텐 야샤 모노가타리(高橋阿伝夜刃譚)』(1879) 등의 이른바 독부물 장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로 이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나, 지면의 한계 상, 후속연구로 넘기고자 한다.

슌스이는 질투하는 여성도 선을 넘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설정으로 여성의 질투를 용인하였다. 슌스이는 ‘집착의 정도, 질투의 방법’이라는 변수를 통해 실로 다양한 개성을 지닌 여성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소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슌스이의 시도는 독자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슌스이닌조본의 특성이 곧 닌조본 장르의 특성으로 여겨질 만큼 트렌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중소설작가로서 새로운 트렌드를 거부할 수 없었던 킨스이 또한 여러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을 시도하게 된다. 『하나가타미』는 주인공인 마쓰지로(松次郎)가 오쓰루(お鶴), 오토라(お寅), 오카메(お亀), 오요시(お芳), 고하마(小濱), 오키누(お絹)라고 하는 6명의 여성과 차례로 관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질투로 인해 악녀가 된 오카메, 오로쿠 등은 벌을 받고, 얼굴은 곰보이나 마쓰지로에 대한 변치않는 사랑과, 질투를 하지 않은 오쓰루는 결국 마쓰지로와 결혼하게 되어 해피엔딩을 맞이한다는

권선징악적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자주인공이 여러 명의 여성과 관계를 가지는 구성은 순스이닌조본의 특징이었으며, 2.1에 명기한 바와 같이 긴스이가 "내가 이제까지 저술한 방식과는 다르게 되었다"라고 언급한 이유도 결국 순스이닌조본과 같이 여러 명의 여성이 등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질투와 집착으로 악녀로 변하는 여성을 그리지 않았던 순스이와 달리, 긴스이의 『하나가타미』는 점점 심해지는 오카메의 악행을 묘사하여 극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차이도 보인다.

### 2.3. 『하나가타미』의 여주인공들의 개성

긴스이는 순스이를 의식하여 "불역체"라고 하는 단어로 순스이와 구분짓고자 하였다. 이는 유행의 묘사는 물론 연애장면의 묘사, 그리고 삼각관계의 사용법 등에 있어서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게 된다. 그 결과, 『하나가타미』에 등장하는 (다른 개성을 보여줘야 등장 의미가 있을) 6명의 여주인공의 성격은 별다른 차별을 보여주지 못한 채, 단순한 선악구조의 연장선상에 머무르게 된다.

구체적으로 각 캐릭터의 성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쓰루는 유교적 이상형, 즉 전형적인 현모양처형의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오쓰루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제10회의 오쓰루에 대한 설명이다<sup>8)</sup>.

보면 불수록 남들보다 떨어지는 위모지만, 행동거지와 다른 모든 것들은 과연 숙모님으로부터 배운만큼 유달리 눈에 띄는 인품은 오요시나 오키누 등과 비교되지 않고, 특히 솔직한 마음씨와 수줍어하는 성격은 비록 내노라하는 공주님들에게도 이러한 여성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릇 바람을 피고 언변이 좋아, 잠시의 불장난에 각별히 흥이 있는 여자는 오랫동안 있어와서 꽃향기도 잃고, 흥도 사라진 후에는 진정함이 엷은 것도 드디어 눈에 띄이고, 결국은 꺼려지게 된다. 또 진심이 깊은 여자는 헛된 것에는 관심이 적지만, 마음의 꽃

8) 見れば見るほど人並には、劣りし縹緖になり乍ら、立挙動より万の事は、流石叔母御の育て柄とて、一際目立つ人品は、お芳やお絹の類にあらず、殊に気立の素直にして、又内端なる性質、仮令緞紳の姫君にも、斯かる処女は多くあらず。凡そ浮気にして口前よく、仮染の戯れにこよなき興のある女子は、久しくありて花香も失せ、興尽きて後は実情の薄きも愈々目に立ちて、竟に疎ましくなるものなり。又実情の深き女子は、浮きたる事には興少けれど、心の花の散る事なれば、百年経ても色はかはらず。されば苦楽を俱にして、生涯真を語らんには、お鶴が如き女子に如かず。

지는 일 없어, 백년이 지나도 색이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고락을 같이하고 평생 참된 것을 말하기에는 오쓰루와 같은 여자가 없다.

얼굴이 추녀라는 부가적인 설정을 제외하면, 전형적인 현모양처형의 여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설명임을 알 수 있다. 유교의 권선징악구도에서 선의 위치에 있는 오쓰루는 질투라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 현숙한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쓰루의 대척점에 있는 오카메는 오쓰루와 정반대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으나 물욕과 질투의 화신으로 그려지고 있어, 『하나가타미』 속편인 『미나토노 쓰키(湊の月)』 제9회(간행년불명)에서 객사하는 것으로 권선징악이 완성된다<sup>9)</sup>.

이러한 대결구도에 덧붙여지는 여성캐릭터가 오키누, 오토라, 오요시, 고하마 등인데 오키누의 모습은 제3회에서 그려지고 있다<sup>10)</sup>.

오키누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유별나게 얼굴이 하얗고, 질은 녹색의 버드나무 같은 눈썹, 자이고노키미가 읊었던 어린처녀도 이렇겠지, 하늘나리 백합과 같은 자태.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 49단 와카구사(若草)를 인용하며, “버드나무같은 눈썹”, “하늘나리 백합과 같은 자태” 등과 같은 직유법을 사용하는 것은 동양고전문학에서 미녀를 묘사하는 일종의 클리셰이다. 또한 제10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키누의 의상에 대한 언급이 있다<sup>11)</sup>.

원래부터 성품이 아름다운데 아낌없이 돈을 들인 화려한 의상은 모두 엄마의 배려이며 말로 하지 않아도 드러나 보이는 그 인품 인물의 의상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독자에게 설명해주는 슌스이의 이쇼즈케(衣装付け)와 달리 오키누에 대한 묘사는 “화려한 의상”이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어, 오키누에 대한 시각적이미지는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9) 人情本刊行会(1926) 『花筐拾遺湊の月/春色恋廻染分解/青樓玉の語言』、人情本刊行会、pp.95-117.

10) 전개서, 崔泰和(2009), p.55. 초출

お絹は<sup>うまれつき</sup>性質、並に勝れて色白く、柳の<sup>まゆ</sup>眉の深みどり、寝よげに見ゆる若草と、在<sup>さいご</sup>吾の君が<sup>うまい</sup>詠じけん、未<sup>まゆめ</sup>通女もかくや、ひめ<sup>ゆり</sup>百合の花の姿。

11) 元より性質の麗しきに、金に飽せし華美衣装は、皆これ母が計らひと、いはねど著き其の人品

이는 다른 여성등장인물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어 제1회에 등장하는 오요시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sup>12)</sup>.

오요시 「네, 무슨 일이신가요」라며 앉는 모양이 어린 아이 같고, 얼굴은 연꽃이나 나팔꽃보다 더한 애교가 있어, 마쓰지로는 이세모노가타리의 사랑노래처럼 사랑의 바람이 소름 돋게 몸에 스미어, 얼굴을 붉히며

연꽃과 나팔꽃에 비유하고 『이세모노가타리』의 와카(37단)을 차용하는 방법 역시 오키누의 경우와 같은 고식적이며 전형적인 묘사이다. 『하나가타미』속편인 『미나토노 쓰키』 제5회에 묘사되는 고타마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sup>13)</sup>.

이야기하는 눈매, 입가에 우수를 품은 면모는 옛날 중국의 서시라는 미인이 심장병에 괴로워하던 것과 같으며, 일본의 오노노코마치가 ‘불러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이라 읊은 것도 이랬을까 생각될 정도로 아름다우니,

서시와, 오노노코마치에 직유하는 방법 역시 오키누, 오요시의 경우와 같다. 또한 오토라는 제4회에 다음과 같은 설명과 함께 등장한다.

오쓰루의 사마센 제자 친구인 오토라는 자는 오쓰루와 같은 나이로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아 지금도 끊임없이 왕래한다. (중략)오쓰루의 마음의 고통을 일신에 떠맡은 근심 고생은 진실로 알려졌다. (중략) 오토라도 원래부터 활발하여,

오쓰루의 친구인 오토라는 오쓰루와 마쓰지로의 관계를 알면서도 마쓰지로의 자식을 임신하게 된다. 오토라는 오쓰루와의 기리(義理)를 이유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하나 오쓰루의 오빠인 조고로(長五郎)에게 구출된다고 하는 작품 전체의 내용상으로도 중요한 스토리를 담당하는 비중높은 인물이나, 위의

12) お芳 「ハイ、何御用で御座います」ト座る形振しどけなく、顔は芙蓉か朝顔の花にも勝る愛嬌に、松次郎は、我れならで、ぞつと身に沁む恋の風、顔赤らめて、

13) 語る目もと、口許に、憂へを含む面影は、昔唐山に西施と言ふ美人が瘡に悩みたる、又我が邦の小野の小町が、誘ふ水あらばと詠じたるも、斯くばかりにやと思ふほど、美しければ、

용례와 같이 오토라에 대한 외양묘사는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하나가타미』에는 다수의 여주인공이 등장하나 그 인물상은 대동소이하여 여러 명이 등장해야 할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제10회의 오요시, 오토라, 오키누, 오쓰루가 다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서로의 이름을 바꿔서 써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sup>14)</sup>.

오요시 「그래도 너무 늦어졌요.

오토라 「흥, 오요시, 빨리 데리고 집에 가서 실컷 즐기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 앞이기도 해. 조금은 참아.

오키누 「어머 그렇게 말하면 질투하는 것 같아 미안하네. 집에 가겠다고 한다면 보내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어쨌든 자고 가니까, 그렇죠 오쓰루님?

오쓰루 「하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신다면 우리도 갈까요?

오키누 「어머어머, 오쓰루님은 이상하시네. 조금 전까지 꼭 자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마쓰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가자 하시네.

그런데 속편인 『미나토노쓰키』 제1회에는 고하마에 대해 "어제 나온 게이샤는 정말 미녀였어 (중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게이샤가 되어서도 정조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야. 마치 요미혼에 등장하는 정녀(貞女)같아(昨夜出た歌妓は、余程美女だったなあ。(中略)漸々の事て歌妓に成つて、操を守つて居ると言ふ条さ。まるで読本の貞女だね)"라는 대화가 삽입되어 있다. 고하마는 요미혼의 여주인공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현모양처형의 여인상에 부합한다는 의미로, 이는 고하마와 대동소이한 오요시, 오토라 등의 인물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가타미』는 형식상으로는 마쓰지로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나 결국은 얼굴은 못생겼으나 유교적 입장에서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오쓰루가 얼굴은 아름다우나 추한 내면을 가진 오카메의 대비를

14) お芳 「それでも余り遅くなりますよ。」

お寅 「へん、お芳さん、早く連れて帰つて、思入れ楽しまうと思つてかえ。人の前もあつたもんだよ。些と我慢をおし。」

お絹 「あれさ、左様云ふと、傍焼とやらの様で悪いわね。帰るとお云ひならお歸しよ。私どもは先刻も申す通り、何様せ今夜は泊りだからねえ、お鶴さん」

お鶴 「然し、皆さんが御歸りなら、私共も歸りませうか。」

お絹 「おやおや、お鶴さんは、可笑しいねえ。先刻まで是非泊りますと被仰つたが、松さんが御歸りだといふと、歸らうと被仰るよ。」

통한, 긴스이닌조본의 특징인 일대일의 권선징악 대결구도의 변주였다.

『하나가타미』의 결말인 제30회는 다음과 같이 끝나고 있다<sup>15)</sup>.

성공적으로 혼인이 성사되었으니 오쓰루는 간절하게 바랬던 소망이 이루어져 마쓰지로의 처로 불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중략) 부부 사이도 화목하여 천세 만세 옥동백이 피는 경사스러운 봄을 기다릴 것이다.

다른 여성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오쓰루만의 해피엔딩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역시 일대일의 권선징악 대결구도인 점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다.

### 3. 나가며

『하나가타미』는 형식상으로는 한명의 남성주인공이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는 구도이나, 결국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오쓰루와 미녀이나 물욕과 질투에 화신인 오카메의 대비를 통한, 긴스이닌조본의 특징인 일대일의 권선징악 대결구도의 변주였음을 확인하였다.

긴스이닌조본의 요체는 "흉악간사함을 기록하여 징악의 도움을 준다. 또한 인과응보, 선악필보의 벗어날 수 없는 이유(凶惡奸邪の事を記して懲惡の一助とす。且、禍福因果、善惡必報の脱ざる故を示し)-山東京伝『梅花氷裂』(1806)序-"를 테마로 하는 산토교덴(山東京伝)의 요미혼(読本)과 맞닿아 있다. 긴스이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소설을 여성과 아동독자를 위한 쉽게 쓴 요미혼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의식의 편린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앞서 언급한 고타마에 대한 "마치 요미혼에 등장하는 정녀(貞女)같아"라는 대사인 것이다.

소설의 기저를 만드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있어서 순스이와는 달랐던 긴스이에게 있어서, 여성독자층을 타겟으로 하는 중본사이즈의 소설군들의 다양성이 무시되고, 전부 순스이가 만든 닌조본이란 단어로 수렴되어, 이윽고 장르

15) 首尾能く婚姻を調へければ、お鶴は思ひに思ふたる願ひ叶うて松次郎が妻と呼ばれる嬉しきは、例ふるに物もなく、(中略)夫婦の中も睦まじく、千代に八千代に玉椿、目度き春を俟つるべし。

명으로 고착화 되어버린 상황은 극복해야할 현상이었다.

스노우의 사후에 쓰여진 긴스이의 『순쇼쿠 요도노 아케보노(春色淀の曙)』(1848년경)3편서에서 중국과 일본의 서적과, 성현들의 경전조차도 인정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없으므로, 중본크기의 소설만을 따로 난조본이라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이를 옛소설의 이름을 딴 '우키요조시(うき世ざし)'로 부르고 주장하는 것은 긴스이의 난조본이 아닌 '긴스이우키요조시'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다<sup>16)</sup>.

『하나가타미』 고찰의 결과, '긴스이우키요조시'의 일관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참고문헌】

- 崔泰和(2009) 「為永春水と松亭金水—人情本の「不易体」と「流行体」について」 『国語と国文学』 1031卷、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p.49. (DOI:10.11501/3549356)
- \_\_\_\_\_ (2010) 「松亭金水の人情本における「伏線」—『毬唄三人娘』を中心に」 『東京大学国文学論集』 通巻5、東京大学文学部国文学研究室、p.116. (DOI:10.15083/00035137)
- 최태화(2018) 「난조본과 딱지본대중소설 비교고찰-멜로드라마적 특성과 현대 영상콘텐츠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05권, pp.91-108. (DOI: 10.1700 3/jllak.2018.105.2.91)
- \_\_\_\_\_ (2018) 「게사쿠(戯作)와 한국 딱지본대중소설의 표지 및 삽화 비교」 『日本文化学報』 76호, pp.265-288. (DOI: 10.21481/jbunka..76.201802.265)
- 神保五弥(1964) 『為永春水の研究』、白日社、 p.44.
- 橋口利長(1966) 「松亭金水の貞操園朝顔」 『文学研究』 23卷、p.4.
- \_\_\_\_\_ (1967) 「松亭金水の「郭の花笠」について」 『文学研究』 25卷、p.5.
- 武藤元昭(1995) 「『春色湊の花』の位置」 『青山語文』 28卷、p.10.
- 人情本刊行会(1926) 『風俗粹好伝/四時遊観花筐』、人情本刊行会、pp.111-470.
- \_\_\_\_\_ (1926) 『花筐拾遺湊の月/春色恋廻染分解/青楼玉の語言』 人情本刊行会、pp.95-117.

논문 투고 일자 : 2020. 03. 15.
논문 심사 일자 : 2020. 04. 24.
게재 확정 일자 : 2020. 04. 24.

16) 앞에 논문, 崔泰和(2009) p.57.

---

 <要旨>
 

---

 金水浮世草子  
 - 『花筐』を中心に -

崔泰和

松亭金水は、春水連の一員でもあったが、春水の作風に従わず、自身の作風を持つ作家であった。『花筐』は、多数の女主人公が登場するという点から春水人情本と共通しており、一見、一人の男性が多数の女性と関係を持つ春水人情本のような小説に見えもする。しかし、『花筐』は顔は醜いが儒教的立場から美しい内面をもつお鶴と、顔は美しいが、ひどく嫉妬する醜い内面を持つお亀の対比を通じて金水人情本の特徴である鮮やかな勧善懲悪の構図の変奏であった。したがって、多数の女性が登場するものの、その人物造形は大同小異であり、他の女性への言及はなく、お鶴だけのハッピーエンディングに終わっても、違和感を感じなくなるのである。小説の基底にある倫理的、道徳的準拠という点において春水とは著しく違いを見せていた金水にとって、女性向けの中本サイズの小説群の代名詞として春水が作った人情本という言葉が使われていたことは、克服すべき現象であった。金水が「金水浮世草子」を主張していたことは、勧善懲悪を強調する金水流の中本小説への主張である。『花筐』は、その好例としてあげられよう。

 The Kinsui ukiyozoshi  
 -focusing on Hanagatami-

Choi, Tae-Wha

There was a rivalry between Syotei Kinsui and Tamenaga Syunsui, rather than a hierarchical relationship. *Hanagatami* features many female protagonists, which is common in Syunsui's ninjobon; therefore, it resembles his novels, in which one man has relationships with many women. However, *Hanagatami* emphasizes the contrast between good *otsuru* and bad *okame*. *Hanagatami* was a variation on compositions featuring good will and discipline, which were characteristic of Kinsui's ninjobon. Therefore, although many women appear as characters, they share similar features. Even if the happy ending *otsuru* is not described without telling the whereabouts of the other heroines, the feeling of strangeness will not be felt. Kinsui differs from Syunsui, in terms of the ethical and moral compliance of his novels. For Kinsui, the use of the word "ninjobon," coined by Syunsui and synonymous with chubon-sized novels for women, was a phenomenon to be overcome. Kinsui's assertion that he call his chubon-sized novels for women "Kinsui ukiyozoshi" was not only based on his promotion of Kinsui-style chubon-sized novels that emphasize good and evil; it was also a rejection of Syunsui's ninjobon. *Hanagatami* is a good example of "Kinsui ukiyozoshi."